

## 몬슨 장로 아이티를 헌납하고 자메이카를 방문하다



카리브해에 역사적인 방문을 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아이티를 헌납하였다. 그는 또한 그 섬의 첫번째 집회소가 건축되고 있는 부지를 헌납하였다.

4월15일부터 17일까지 그가 아이티와 자메이카에 머무른 것은 사도가 이 두 섬을 방문한 첫 기록이 되었다. 4월17일, 플로리다주 포트시 로더데일 선교부장이인 케네스 엘 자브리츠키 형제와 레오라 자매를 포함하여, 60명의 회원들이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산에서 열린 간소한 모임에 참석하였다.

몬슨 장로는 또한 그 방문 중에, 전세 버스를 타고 온 회원들이 모인 아이티와 자메이카에서 열린 모임에서 말씀하였다. 약 225명이 자메이카의 수도인 킹스톤에서 참석했고, 289명이 아이티의 수도인 포트프랭스에서 참석했다. 그는 또한 아이티에 있는 16명의 선교사와 자메이카에서 봉사하는 6명의 선교사, 두 명의 자매 선교사와 네 명의 부부 선교사에게 말씀하였다.

“몬슨 장로는 구세주의 생애를 공부할것

을 강조하였으며, 회원들에게 그분을 따라 생활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는 그 곳 회원들이 보여준 헌신과 경의에 감사하고 그곳 어린이와 젊은이와 지도자들을 치하했다.

최근에 그 두 나라에서 지방부가 조직되었는데 빅터 뉴전트 형제가 자메이카를 담당하고, 루드너 이 아만드 형제가 아이티를 담당하고 있다. \*

## 교회에서 가나와 콜롬비아와 타히티에 원조를 보냄

교회 복지 사업과의 역원에 따르면, 교회는 가나에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콜롬비아와 타히티에 건축 자재를 보냈다.

복지 사업 관리 책임자인 글렌 엘 페이스에 따르면, 특히 최근 나이지리아로부터 백만이 넘는 가나인들이 가나로 돌아온 이래,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나에 약 4만5천 킬로그램의 식량과 필수 의약품이 수송되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내의 모든 비 나이지리아인들의 비자를 취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백만이 넘는 가나 시민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던 가나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페이스 형제는 말하였다.

콜롬비아와 타히티로 간 건축 자재는 최근에 지진과 태풍으로 각각 크게 재난을 입은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수많은 주택들이 무너졌거나 크게 파

손되었습니다. 나라 안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건축 자료를 다 써버리게 되자 타히티와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솔트레이크시티를 통해 원조를 요청한 것입니다.”하고 페이스 형제는 말했다.

세 나라에 보내진 모든 구호품과 자재들은 교회 회원들이 금식 현금으로 바친 기금으로 마련되었다고 페이스 형제는 말하였다.

집 수리를 위한 자원 노동자는 두 나라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 제공되었다고 그는 덧붙여 말하였다.

가나로 향하는 식량은 유타주 센티발에 있는 3개 스테이크 교회 회원들에 의해 짐이 꾸러졌다. 적재물에는 옥수수, 콩 쌀, 소금, 설탕, 식용유, 우유 가루 등이 포함되었다.

약 2만 킬로그램의 구호품이 일반 국민에게 분배될 것이며, 그 나머지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교회 회원에게 고루 분배될 것이다. 가나에는 대략 1,000명의 교회 회원이 있다.

페이스 형제는 가나의 다가오는 추수 철은 식량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

## 사랑과 봉사의 이야기로 가득 찬 상호부조회

상호부조회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적인 진보를 나타내며 많은 문화와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 이야기라고 제10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는 것처럼 세계적인 규모의 여성 조직 창립 141주년을 기념하는 최근의 모임에서 말했다.

“상호부조회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에서 스미스 자매는 요셉 스미스가 1842년 3월17일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18명의 자매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오늘날 82개국에 퍼져있는 상호부조회 회원 수는 160만 명에 이른다.

스미스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매들은 이번엔 양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여성, 모든 아내와 모든 어머니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를 위해 변호하는 옹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나 똑같이 옹호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스미스 자매는 상호부조회가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봉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자매들은 병든 사람을 돌보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도와 주며 가난한 사람에게 식료품과 의류를 모아 나눠 주고 중공에 밀을 선적해 보냈으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민에게 구호 물자를 보냈고 미망인과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다.

“발전 속도가 때로는 느릴 때도 있지만 자매들은 지금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베푸는 사랑은 우리들 곁에서 날마다 혹은 오랫동안 계속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여성을 위한 새 시대이며 마음과 정성을 넓혀 나갈 가능성이 더 커진 시대입니다. 상호부조회에는 여러 언어를 가진 각국에 있는 오늘날의 자매들에게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느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자매들은 일평생 배우도록 힘쓰라는 새로운 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주며 도와 줄 수 있습니다.” \*

## 말일성도 등반가 산소없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다



말일성도 등반가인 래리 닐슨의 모습. 에베레스트산에서 1982년에 찍은 사진으로 이때 그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오르는데 실패하였으나 금년 5월에 한 두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였다.

올림피아 와싱턴 제4와드의 제사정원회 교사인 래리 닐슨은 에베레스트산을 오른 첫번째 말일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소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을 오른 첫번째 미국인이 되었다.

닐슨 형제의 아내인 바바라 자매의 말에 따르면, 작년에 에베레스트산의 정복되지 않은 북쪽 경사를 오르는 데 실패한 닐슨 형제(36세)는 이번에는 남쪽 경사를 통해 5월 7일, 동상과 가슴의 통증으로 시달리며 산의 정상에 도달했다고 한다.

남편으로부터 단파 수신으로 소식을 들은 닐슨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저에게 나는 건강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가 모진 고통을 느끼며 산을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또한 그곳 사정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그

렇지 않았으면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산에서 내려 와야 했을 거예요.”

교사인 닐슨 형제는 미국인 등반가 세명과 티베트 사람 안내인, 셀파와 함께 정상에 도착했다. 그러나 산소기 없이 오른 사람은 닐슨 형제 뿐이었다.

등반중 산소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베이스 캠프 매니저인 로드니 코리치는 “닐슨의 행동은 참으로 용기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산소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큰 모험을 하였으며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초록의 축제 전주 지방부

전주 지방부 소속의 각 지부 독신 성인들은 6월 6일 전주 지부에서 지방부 독신 성인 회장인 김 전형 형제의 사회로 특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90여명의 독신 성인들은 이모임을 초록의 축제라고 이름 지었으며 군산 수산 전문 대학의 천 형균 교수와 서울 동신학 연구원의 조 만구 교수를 초빙하여 “역사와 종교”에 대한 세미나와 “희생에 의해 얻어진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

세미나를 마친후에 가진 간증 모임에서 많은 회원들이 간증을 하였으며 특히 박혜경 자매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간증 모임이 끝난 후 지방부 상호부조회 역원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었고 무도회와 다함께 노래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박주인 지방부장은 전주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우기 위하여 독신 성인들이 해야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 브리감 영 대학교 국제 민속 무용단 한국 공연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부터 청운 와드 활동실에서 브리감 영 대학교 국제 민속 무용단의 공연이 있었다.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관중이 한꺼번에 관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부로 나누어서 공연하였다. 학생들은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열심히 공연하여 장내를 메운 관중들의 수많은 박수를 받았다. B. Y. U. 국제 민속 무용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용단으로 미국의 민속 무용 전문가인 메리 켈슨 여사가 본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폭넓은 순회 공연을 가졌고 특히 콘서트와 국제 페

스티발의 참가를 통하여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아 왔다. 순수한 전통 의상과 전문적인 안무가 특장인 본 무용단은 1964년 전 미국의 민속 무용 공연팀으로 국제 페스티발에 첫 선을 보였으며 1974년에는 국제 민속 무용 경연 대회(CIOFF)에 미국 대표팀으로 참석하였다. 본 무용단은 1981년 6월 24일 한국의 국립 극장에서 한국 국제 문화 협회의 초청으로 공연하여 크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브리감 영 대학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으로 26,000여명의 학생이 있는 대규모 사립 대학이다. \*

브리감 영 대학교 국제 민속 무용단 전원.



# 부산 스테이크 대회



83 5 29

스테이크 대회 광경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 하면 죄니라."(야고보서 4:17)는 주제로 '83년도 전반기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5월 29일, 수정 와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감리자인 한 인상 장로는 말일성도인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결의와 사랑을 나누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서울 신전이 완공되면 그곳에서 반을 의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특별히 한 인상 장로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 입고 있었던 약대 털옷은 질기고 따뜻하여 추위를 막을 수 있으나 입는 사람은 피부가 근질근질하여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이



것은 사치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약대 털옷을 입은 성도로서 피부가 항상 근질근질할 때 회개하는 생활과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